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4, No.6 (증보판, October 2004) pp.53-64

북한 전통복식문화에 관한 연구

김 여 경*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A Study of North Korea's Traditional Dress in Cultual Aspect

Yeo-Kyung Kim* · Na-Young Hong+
Doctoral Course Dept.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4. 4. 19 투고)

ABSTRACT

North Korea's traditional dress(*chosun-ot)* has developed as follows : right after the liberation(1945), North Korea tried to get rid of Japanese style and empty formalities and vanity, so *chosun-ot* became simple and practical. And from the Korean war to 1950's North Korea had tried to establish through a restoration of the war and *chosun-ot* is more easy and simple. For 1960's People became to be interested in their clothes owing to a stable socialistic economy and politics, and tried new styl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Japanese. Since 1972 North Korea has claimed a dictational socialist organization, and constructed its own culture. Therefore North Korea emphasized its own clothing habit, and its garment style developed differently from South Korea. Since 1984 North Korea tried to change its policy dramatically, and *chosun-ot* has changed to a modern and various style. But on the other hand, traditional style of *chosun-ot* was more emphasized.

North Korea especially tried to succeed its traditional style, it pursued only partial changes by sticking to its original style. And its color to bright and magnificent one with additional ornaments. Because it tried to change the style within the limits of its tradition, traditional dress has a quite fragmentary and flat appearance.

Key words : North Korea(북한), *Chosun-ot(조선옷)*, *Hanbok*(한복), traditional dress(전통복식), tradition(전통), modernization(현대화)

Corresponding author: Na-Young Hong, E-mail: nyhong@ewha.ac.kr

Ⅰ. 서론

과거 남북한간의 정치적인 대결상황이 와해되고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로의 생활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복식에 대한 연구는 여성학이나 경제학, 민속학 등 타학문의 일부분으로서[1] 이루어지거나 일반적인 의생활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2] 또는 산업보고서[3] 정도로 복식학적인 접근이 미진하였다. 북한 사회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복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해방이후 현재까지 북한에서 착용되었던 전통 복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에서 전통복식은 복식 전반을 대표할 만큼 그 위상이 대단하므로 전통복식의 역사적인 흐름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간단하게나마 북한의 복식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조선옷'과 남한의 '한복'은 전통복식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복식을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와 국가,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가치가 변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이념에 따른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전통복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시대적인 연구범위는 해방이후 북한이 정권을 성립한 후부터 현재까지이다.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기 위하여 북한 사회의 변화를 기준으로 제 1기 (1945-1953), 제 2기 (1953-1972), 제 3기 (1972-1984), 제 4기 (1984-현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 1기는 해방이후 국가건설과 한국전쟁의 시기이고, 제 2기는 전쟁 이후 전후복구 과정을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정립하는 시기로 하였다. 제 3기는 북한이 1972년 주체헌법 제정과 함께 주체이념을 국가적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던 시기이다. 제 4기는 1984년 합영법 제정과 함께 북한이 국내외 정세에 따라 변화를 모색한 이후 현재까지로 하였다.

북한에서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만이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남성의 착용은 일반적으로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5] 이번 연구에서도 여성이 착용하는 전통복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북한 사회는 개별의 사회현상도 전사회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6]. 따라서 북한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복식의 변천을 Ⅱ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Ⅲ장에서는 북한의 전통복식문화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방면으로 접근하고자 정치·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복식미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북한 출처의 당 기관지, 북한에서 발표된 관련논문과 단행본과 남한의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발간된 자료, 북한관련 논문, 북한 방문기행문 및 수기와 사진집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북한잡지의 사진과 기사를 분석하였으며 탈북자 및 월남자 면담을 통하여 문헌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Ⅱ. 북한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복식의 흐름

1. 제 1기 : 1945-1953

제 1기는 해방 이후 북한이 평화적으로 국가건설을 하던 시기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이다. 전쟁 전 북한은 사회주의에 적합하도록 대중을 계몽하고 일제시기의 풍속을 없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복식에서는 일본풍 복식양식을 청산하고, 봉건적 복식풍습을 없애[7] 사회주의 국가에서 요구되는 노동에 적합한 민족복식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복식개량의 기본방향이었다. 건축이나 예술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볼 때 복식에서는 주로 넓은 바지통을 이나 소매통을 줄이는 등 봉건적 옷차림풍습을 개량하여 간단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기에 이루어진 복식변화가 대부분 일본풍

이 아니라 서구화였으므로 일본식 복식양식이 폭넓게 도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복식에 있어서 일본풍의 청산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괄목할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물이나 의복제조과정에서 도입된 일본식 복식용어의 국어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예로 일제말기 여성들의 작업복으로 도입된 '몸빼' 의 착용을 금지한 것을 들 수 있다. 몸빼를 금지하면서 바지도 우리의 전통적인 형태가 아니고 일제의 잔재라 하여 모든 형태의 바지 착용 금지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터뷰와 사진 조사 결과 '몸빼'라는 일본식 용어만 사라지고 그 형태는 작업복으로서 계속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인민경제발전계획(1947~48)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의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의주 방직공장 완공, 청진 방직공장 복구와 함께 평양 방직공장 등을 통해 다량의 인조섬유를 생산하게 되었다. 서평양 직물공장과 안주, 박천, 영변의 견직공장이 신설되면서 면직물, 견직물과 함께 고무신, 메리야스, 양말 등의 산업도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다[8]. 그러나 성공적인 경제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료상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였다. 기본적으로 섬유자급을 위한 자연적 여건이 열악하였으며 분단과 함께 남북간 물자교류가 어려워져 섬유원료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국 전쟁 발발이후에는 군수물자 조달로 인하여 물자가 결핍되었고 섬유공장 및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섬유원료작물 생산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왔다.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전시증산운동과[9] 절약운동 등을 벌여 부족한 물자를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증산된 옷감도 대부분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일반주민의 의생활은 피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0].

해방이후 전쟁시기동안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복식형태는 전통적인 치마, 저고리차림이었다. 긴 치마와 품이 좁은 저고리는 근로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이 많았으므로 일제시대 복식개량에서 시작된 실용적이고 간소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착용되었다. 좁은 저고리 품을 늘이고 치마길이를 짧게 하였으며 여학생들이 주로 입었던 치마의 조끼허리와 통치마가 널리 보급되었다.

<그림 1> 전쟁시기 옷차림
출처: Korea War;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Vol. II

2. 제 2기 : 1953.7-1972

제 2기는 한국전쟁 후 복구와 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정립하는 시기였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전쟁의 책임을 물어 정적을 물리치고 정권을 장악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얻게 되었다. 또 서구 공산국가의 원조와 경제계획의 성공에 따른 경제수준의 향상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정립하게 되었다[11].

평남방직, 구성방직을 위시한 방직공장과 일용품 공장 등 생산기반 시설을 재건하여[12] 면직물, 견직물, 내의류, 양말 등의 생산량이 향상되어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고 한다[13]. 또 인민경제 개발 7개년 계획(1961~1967)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서 섬유원료문제를 해결하였으며[14] 비날론 등의 화학섬유의 개발·생산으로 주민들의 의류생활은 전후복구시기의 궁핍에서 다소 벗어나게 되었다.

1960년대는 체제의 안정과 더불어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였다. 정치에서의 주체사상뿐 아니라 경제, 학문, 예술 등 분야에서도 주체적인 입장을 강조하였다. 한편 주체적인 경제건설을 위해 1957년부터 제 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실시하였는데

'중공업을 우선으로 한 경공업 병진정책'이 경제의 기본 방향이었다. 이것은 이후 섬유산업을 비롯한 경공업의 산업기반 낙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 사회 안정과 함께 의복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 의복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높아졌다[15]. 이른바 '천리마시대'로서 새로운 사회주의 시대에 맞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적합하도록 복식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상황에 따라 치마길이를 다르게 하여 명절이나 행사시에는 긴 치마를 착용하고 무릎길이 정도의 짧은 치마는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16]. 그러나 이러한 짧은 치마의 등장은 1960년대 세계적인 미니스커트의 대유행과 달리 노동의 편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짧은 치마를 권장하였으며 정책적인 의도에서 시도되었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 2기의 일반적인 옷차림은 개량된 전통복식에 양말, 운동화, 퍼머 머리의 차림이나, 고무신에 쪽진 머리의 전통적인 옷차림이 동시에 나타났다. 주로 청년층은 다소 현대화된 복식을, 중·장년층은 보다 전통적인 옷차림이었다. 특히 1959년부터 시작된 재일교포의 북송을 계기로 새로운 스타일이 도입되어[17] 주민의생활이 보다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림 2> 전쟁 후의 옷차림.
출처: 북녘 사람들

<그림 3> 1960년대 짧은 치마차림.
출처: 조선, 1966년 10호.

3. 제 3기 : 1972-1984

제 3기는 북한이 1972년 주체헌법을 공포한 이후 1984년 합영법으로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기 이전까지의 시기이다[18]. 1970년대의 북한 경제는 그동안 추진해온 중공업 우선정책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로 인해 경제 발전은 차츰 정체되고 주민생활수준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주체사상을 입법화하면서 전국가적으로 주체사상을 내세우게 되었다. 주체적인 옷차림과 동시에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현대적인 미감에 적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소재의 전통복식이 등장하여 옷차림에 대한 낡은 규범과 격식을 깨뜨리고 다양한 대중의 기호와 활동성에 부응하고자 하였다[19].

전통복식차림에 모자와 머리수건, 꽃양산 등을 함께 착용하였으며 계절과 개인의 개성에 적합한 현대적인 색깔과 형태를 입을 것을 제안하였다[20]. 특히 얇고 무늬 있는 삼각 머리수건이나 나일론 양산, 구두, 니트 삼각 숄이 크게 유행하였다. 소재나 색상이 화려하고 다채로워졌으며 치마가 길어지고 폭이 넓어졌다. 주체적인 옷차림을 주장하는 이때부터 북한의 복식이 남한과 상이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1970년대 옷차림
출처: 조선, 1978년 4호.

1970년대에는 '부르조아의 잔재'라고 치부되던 의복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되었다[21]. 남북적십자회담, 민간단체의 방북활동 등 외부와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1970년대 초에는 정책적으로 도시주변의 주민들에게 유색복장을 장려하였으며, 1980년 경 평양의 남녀시민에 대해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복정책이

변화한 것은 주민생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22]. 그러나 의복에 대한 정책변화와는 달리 실제로는 유행을 따르기 보다는 기존에 입던 의복을 계속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23] 주민경제가 악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새로운 복식 양식을 시도하거나 다양한 옷차림을 착용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제 4기 : 1984- 현재

제 4기는 북한이 1984년 합영법을 발표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북한은 세계 사회주의체제의 몰락, 중국의 개방화라는 외부의 변화와 악화 일로에 있는 국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국가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을 하게 되었다. 경공업의 침체에 따른 물자부족과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 제 6차 노동당대회에서는 '15억 메터의 직물고지'를 점령할 것을 제시, 1984년은 '경공업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8·3 인민소비품운동' 등을 벌여 가사 노동력을 활용한 가사작업반을 조직하고 공장의 자투리 천과 남은 부자재를 이용하여 소비품의 생산을 늘리고자 하였다[24]. 특히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제한적이나마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국내 경제에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합영법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한계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주민은 직간접적으로 남한과 서방의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복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25]. 특히 평양에서 열린 1989년 제 13차 청년학생축전을 통하여 북한 주민은 다양한 서방의 문화와 패션을 직접 접하게 되었으며 이제까지 주종을 이루었던 작업복, 검정 통치마와 흰 저고리 차림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26].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바지 착용과 검정 옷 착용을 금지한 것과 같이 대외교류가 점증하는 시점에서 외부에 보이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생각된다.

1990년에는 기존의 중공업 우선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제노선을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선회하였다. 소비재 부족을 해소하여 주민수요를 해결하고[27], 주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28]. 무역제일주의에 따라 북한경제의 대외수출입이 확대되고 외국수출용 의류를 제작과[29] 함께 외국과의 소통이 비교적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복식양식이 도입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의복에 있어서 화려한 색상과 대담한 노출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여[30] 의복정책과 의복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하였음을 시사하였다.

변화된 정책에 맞추어 잡지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복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는데 "조선", "조선 녀성", "천리마"등을 통해 의복소재와 의복제작 방법, 색상조화, 착용방법 등을 제안하였으며[31], 1990년대 이후에는 머리모양과 손질법, 화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등장하였다[32]. 또한 1990년 '인민소비품 본보기'라는 디자인 전문책자를 통해 의류, 신발, 가방 등 생필품의 다양한 도안과 함께 옷본을 보급하여 각 가정에서 의류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복에 대한 홍보는 의복생산의 다양화와 의복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석 할 수도 있지만 배급에 의한 의복공급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잡지 뿐 아니라 전시회와 패션쇼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시도되었다. 1990년 전국경공업대회와 1991년 4월 평양에서 '총련 합영제품 전시회'라는 패션쇼를 선보였으며 1994년에 개최된 '조선옷 품평회'는 조선 중앙TV로 중계 방송되었다. 해마다 전통복식과 양복의 합동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9년에 개최된 '조선민족의상전시회'를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남한의 전통복식에도 관심을 보여 남한의 디자이너 이영희가 '민족옷 전시회'라고 하는 패션쇼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었다[33]. 이는 남북한의 패션교류가 전통복식의 부분에서 시작된 데에서 상당한 의의를 둘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변화하는 의복정책 이면에 검박한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악화에 따라 사회주의적 풍조가 해이해지고 자본주의적인 풍조가 성행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증하는 것으로[34] 북한 의복정책의 이중적인 면을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바닥까지 긴 치마와 하이힐을 함

께 착용하고 있으며 저고리 길이는 가슴아래 정도이고 품도 상당히 좁은 것이 유행이다. 전통복식이 일상적인 옷차림 보다는 의례적으로 착용되면서 활동성 보다는 미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얼굴과 이목구비를 강조하는 서구식 화장이 도입되었고 귀고리, 목걸이 등의 장신구도 함께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최근 전통복식차림.
출처: 아름다운 조선옷

Ⅲ. 북한 전통복식의 특성

1. 정치·경제적 측면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과 달리 북한은 모든 사회의 구성요소가 사회주의의 조직 원리에서 구성되어 있는 사회주의국가이다. 따라서 복식의 착용이나 미의식 역시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인 요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있다. 특히 1955년 김일성이 '사상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제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주체사상은 국가이념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정치사상인 주체사상은 경제부문에서는 자립경제이론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자국의 자원과 기술, 노동력에 따라 모든 물질적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였다[35].

의류산업 또한 자립경제이론의 바탕 위에서 원료의 생산, 공급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섬유원료를 자체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비교적 북한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한 천연섬유인 견직물이나 아마직물의 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 직물의 명칭 또한 '약산단', '구룡단' 등으로 짓는 등 강력한 자립경제노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척박한 북한의 자연환경 때문에 천연섬유로 주민 전체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특히 합성섬유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주체섬유'라 불리는 비날론은 북한 도처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으로 만든 것으로 1950년대 후반 개발되어 196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의복재료 부족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36].

국가차원에서의 자립적인 생산뿐 아니라 지방 단위에서도 자립적인 생산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섬유생산시설을 원료가 생산될 수 있는 지역에 건설하여 서해안의 갈대, 옥수수 대를 원료로 하는 인조섬유공장을 신의주에 건설하였고, 개성에서는 초물공업이 활성화되어 초물로 만든 가방과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등장하였으며 무연탄 생산지대와 인접하여 청진 화학섬유공장이 건설되었다[37].

의복의 공급 또한 각 지방단위의 자립적인 경제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토지의 협동적 소유화정책이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1957년도 정도에 이르면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38] 의류공급은 주로 배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가내 의복생산방식에서 배급표를 가지고 기성복을 각 지역의 국영상점에서 구입하거나, 배급된 옷감으로 의복을 제작하는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2. 사회적 측면

북한은 사회적으로 남녀의 성차를 두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 전후복구과정과 사회주의 정권 성립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용이하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다[39]. 특히 여성 교육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40] 정치활동, 경제부문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여

1960년대에 이미 여성노동력이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와 같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에 따라 여성들이 착용하는 전통복식도 노동과 활동에 편리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여성 교육을 국가 시책으로 부각시키면서 교육을 위한 의복인 학생복 또한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여 변화하였다. 일상적으로 입는 학생복은 주로 배급을 통해 공급되었는데[42] 대개 여학생들은 일제 시대부터 학생복이었던 통치마·저고리를 입었고 남학생들은 인민복을 착용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반적인 의복에 대한 정책이 현대적인 복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교복도 코트와 점퍼스커트, 블라우스의 양복으로 변화하였다[43]. 그러나 근래에도 학생 혹은 일반여성이 검정 통치마와 흰 저고리를 입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족적 정서를 강조하는 의복정책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부분 뿐 아니라 여성의 정치·경제적인 사회참여가 활발하여 집회나 행사 등 다양한 공식적인 모임이 많으며 모임의 성격에 따라 정책적으로 전통복식의 착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주체적인 옷차림을 강조하였던 것과는 달리 북한의 전통복식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착용이 줄어들고 있으나 행사를 위한 착용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치마·저고리의 여학생복.
출처: 조선, 1972년 3호.

<그림 7> 행사를 위한
전통복식차림.
출처: 조선, 1999년 12호.

<표 1> 잡지에 나타난 상황에 따른 전통복식의 착용 비교

N=224

	일상적 착용의 상황				행사를 위한 착용상황			총계
	학생복	노동·출퇴근	상점	가사활동	공식적인 행사	가정 내 행사	공연	
1970-1975	7(3.12)	12(5.35)	15(6.69)	16(7.14)	33(14.73)	4(1.78)	12(5.35)	99(44.19)
1976-1980	3(1.33)	8(3.57)	14(6.25)	7(3.12)	12(5.35)	6(2.67)	5(2.23)	55(24.55)
1981-1985	1(0.44)	4(1.78)	6(2.67)	2(0.89)	22(9.82)	7(3.12)	8(3.57)	50(22.32)
1986-1990	0	2(0.89)	1(0.44)	0	14(6.25)	6(2.67)	7(3.12)	30(13.39)
총계	11(4.91)	26(11.60)	(16.07)	(11.16)	81(36.16)	23(10.26)	32(14.28)	224(100)

※ 전체 전통복식의 착용상황을 일상적인 상황과 행사를 위한 상황으로 나누어 북한의 대표적인 잡지인 〈조선〉의 기사사진 1을 착용 1로 보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착용빈도를 조사하였다.

〈표 1〉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복식의 착용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상적인 착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의 전통복식착용은 1980년대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그 비중은 1970년대에 비하여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3. 문화적 특성

북한은 1970년대 주체헌법의 제정과 함께 민족성을 한층 강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44] 1990년대 이후에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어 걸면서 강력한 민족주의로 체제 옹호에 힘쓰고 있다. 반면에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과 중국의 개방화라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 내부로만 향하던 시각을 외부로 바꾸고 있다. 북한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미감[45]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북한의 미의식에 있어서 개방화, 현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성과 현대적 미감의 문제는 상호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 북한이 처한 대외적인 상황, 체제옹호와 개방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전통복식문화 또한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성을 갖춘 복식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통속성은 전통계승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있어서 통속성은 대중에게 쉽게 이해되는 것으로서 창작의 기본 목표인 인민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므로[46], 남한에서의 저속한 대중문화로서의 통속성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통속성을 기반으로 북한의 전통문화는 박제된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중문화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전통복식 역시 민족적 요소를 현대적 미감에 맞게 변화시키고 통속성을 구현하면서 전래의 전통복식에 또 다른 형식과 미감을 더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고구려복식과 유사한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 북한이 단군 조선과 고구려의 후계라는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국가정체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대의상으로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선(選), 화(靴), 주름치마, 대(帶)등의 의복과 장신구 등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고구려벽화에 나타난 복식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8> 고구려복식의 재해석.
출처: 아름다운 조선옷

<그림 9> 변형된 치마형태.
출처: 조선, 1994년 3호.

4. 복식미적 측면

1) 형태

북한에서는 전통복식의 일상적인 착용이 줄어들고 행사를 위한 착용이 많아지면서 화려하고 장식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주로 무대의상에서 보이는 것이나 드레스와 같은 실루엣과 장식기법이 도입되었다. A라인의 드레스에 층층이 프릴을 달거나, 코사아지를 옷 전체에 덧붙여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밈에서도 전통적인 외고름 외에 리본이나 꽃모양으로 고름모양을 변화시키거나 브로치 같은 것으로 여밈을 한 것도 있다.

북한 저고리 형태 중 특이하게 저고리 여밈을 중심에 두고 도련을 둥글게 한 것이 있는데 1960년대 남한에서 제시된 아리랑드레스의 여밈과 유사한 형태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일반화되지 못한 반면에[47] 북한에서는 무대의상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로 현재까지 북춤, 장고춤, 부채춤 등의 무대의상 뿐 아니라 어린이 복식이나 행사장, 가두행진에서 널리 착용되고 있다. 대개 얇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소매통도 좁고 저고리길이도 겨드랑이 바로 아래 정도로

짧다. 착용이 확산되면서 저고리 위에 대(帶)를 착용한 형태, 배자를 덧입거나 덧입은 것처럼 보이는 형태, 수(繡)와 스팡글 장식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그림 9> 맞깃 저고리.
출처: 조선, 1983년 10호.

2) 색채 및 소재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통복식의 색상을 밝고 아름다운 색조가 민족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분홍색, 하늘색, 연두색, 옥색 등의 중간색을 선호한다고 한다[48]. 사진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원색이나 중간색에서도 채도가 높은 색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림 11> 결혼식에 선호하는 소재와 색상
출처: 아름다운 조선옷

<그림 12> 다양한 소재의 혼합
출처: 아름다운 조선옷

일상적으로 착용되는 의복의 소재로는 흰 색, 검은 색, 회색의 무채색 계열의 단색을 주로 사용하지만 행사를 위한 것으로는 무늬가 크고 화려하며 선명한 색상이 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의 복식에 나타난 색채는 다소 단조롭고 일률적인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는 북한의 미의식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섬유산업 기술 수준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통복식의 소재로 주로 북한에서 생산되는 합성섬유와 견섬유를 이용하였는데 현재는 섬유수급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소재가 그리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 때에는 주로 인견이나 꽃무늬 나일론, 레이스 소재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접견하거나 훈장을 다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레이스소재나 벨벳소재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벨벳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재이며 고가(高價)의 직물로 주로 국가에서 수훈한 사람들에게 하사된다고 한다[49]. 또 치마, 저고리 한 벌에 다양한 소재의 혼합을 통한 장식효과를 주기도 했는데 깃, 고름부분을 레이스 천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소재를 끼워 넣어 장식한 것도 볼 수 있다.

3) 의복 구성

북한에서는 민족성과 현대적인 미감을 갖춘 새로운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50].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의복구성 부분에서 1980년대에 '입체적인 설계'방법을 도입하여[51] 전통 복식의 직선재단법으로 인하여 옷이 신체에 편안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말하는 입체적인 설계는 현재 남한에서 일반적인 복식용어로 사용되는 입체재단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고대부분에서 제대로 깃이 놓이지 않고 목이 불편한 것을 극복하고자 저고리의 깃을 종전보다 4~5 cm 더 길게 하고 동정의 너비는 1~1.2 cm 이하로 좁혔다고 한다. 북한 잡지의 사진에서 1980년대 이후로 동정 폭이 좁아지고 깃 길이가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전통적인 어깨선의 주름을 제거하였고 어깨에 심지를 넣어 현대적인 감각을 시도하였다고 한다[52].

북한에서는 현재 전통복식에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남한의 생활한복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깃과 동정, 고름, 도련선과 배래선을 없애면 전통복식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53]. 깃, 고름, 동정 등의 구성 요소와 치마·저고리 같은 중요한 양식적인 특징은 고수하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추구

<그림 13> 1970년대 깃과 동정 형태
출처: 조선, 1977년 9호.

<그림 14> 현재 깃과 동정 형태
출처: 개인 소장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전통복식이 스팡글이나 리본을 덧붙이거나 코사지, 레이스 등으로 과다하게 장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복식의 구성적인 특성을 고수하면서 현대적인 미감을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북한은 분단 이전까지 남한과 동일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향유해왔으며 복식에 있어서도 다소 지역적인 차이를 배제하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의 단절로 인해 북한은 나름의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북한의 전통 복식문화 역시 북한 사회의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복식의 흐름을 각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기 (1945-1953)인 해방부터 한국전쟁의 시기에는 사회주의 문화와 노동에 적합한 복식으로 간편하게 변화하고자 하였으나 전통적인 치마·저고리 차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 2기 (1953-1972)는 전쟁이후 전후 복구를 통한 사회주의 정립의 시기였다. 정치·경제적인 안정과 체제 정립을 바탕으로 주민 의생활 수준이 다소 향상되었다. 다양한 합성섬유가 개발되었으며 북송된 재일교포의 영향으로 새로운 스타일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제 3기(1972-1984)에 북한은 독자적 사회주의 체제를 주창하면서 주체적인 옷입기를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양식에 맞는 옷차림과 함께 현대적인 미감에 맞는 다양한 전통복식 옷차림이 유행하였다. 제 4기(1984-현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내의 상황에 따라 주민의 의생활 또한 변화하게 되었는데 보수적인 의복정책이 다소 완화되었고 의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통복식은 보다 다양하고 현대적인 옷차림으로 바뀌게 되었다.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전통복식은 남한과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복식문화는 기본적으로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는 자립경제이론에 따라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자립경제를 위한 강력한 중공업 우선정책은 경제악화 뿐 아니라 경공업 낙후, 전반적인 의생활 질 저하를 초래하였다. 배급이 축소되면서 전통복식의 공급 또한 줄어들어 일상적인 착용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행사를 위한 복식으로서 그 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적인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통복식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하게 현대화하고 있으며 확고한 민족제일주의에 힘입어 살아있는 전통복식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로 전통복식의 일상적인 착용이 줄어들고 사회적인 행사를 위한 착용이 많아지면서 북한의 전통복식은 장식을 강조하고 있다. 색상과 소재는 화려하고 원색적인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장식을 덧붙이거나 다른 소재를 조합하는 등 주로 기존의 구성요소 위에 부가적으로 장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남북 대립상황으로 인하여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고, 각각의 입장에 따라 견해차이가 컸으므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연구의 어려움이었다. 또 북한의 전통복식을 주로 사회문화와 연결하여 살펴보면서 복식자체의 변화는 심도 깊게 살펴보지 못 한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었다. 추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물자료를 통한 후속 연구를 요청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이태영 (1988). 가정복지 정책과 여성생활, 북한여성. 서울: 실천문학사.
손봉숙 외 (1991). 여성의 의식주 생활,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2). 북한 섬유공업현황. 서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강현 (1994). 의생활풍습.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서울: 대동.
2) 이선재 (1993). 북한주민의 복식에 대한 고찰. 북한문화연구 제 1집,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3) 전양진 (1998). 북한의 섬유제품 무역현황. 북한연구, 서울: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4) 박영원 (2001). 디자인기호학. 청주: 청주대학교 출판부, p. 118.
5) 천석근 (1991). 옷과 옷차림. 사회주의 생활문화백과(上). 평양: 근로단체 출판사, p. 194.
6) 강정구 (1996).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방법론.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pp. 32-46.
7) 백옥련 (1981). 민주건설시기 낡은 생활인습을 없애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과학, 2호, p. 36.
8) 조선중앙방송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49, p. 104.
9)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5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 213-220.
10) 주강현 (1994). 의생활풍습.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서울: 대동, p. 102.
1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1989). 조선로동략사 1. 서울: 돌베개, p. 25.
12) 편집부엮음 (1988).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 서울: 돌베개, p. 93.
13)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 1956, p. 113.
14) 편집부엮음 (1988). 앞의 책, pp. 206-208.
15) 이태영 (1981). 北韓의 女性. 서울: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pp. 62-63.
16) 조선로동당 (1982). 김일성 저작집, 제 16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p. 209.
17) W. 버쳇 (1988). 북한현대사. 서울: 신학문사, p. 217.
18)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타국의 기업이 북한 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부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정체되는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으나 주된 대상이 조총련계 기업이었으므로 실제적인 변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19) 천석근 (1991). 사회주의 생활문화 백과(下). 옷과 옷차림.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p. 239.
20) '우리 인민에 깃든 커다란 배려'. 조선녀성. 1984년 4호.
21) 북한연구소편 (1986). 북한총람. 1983-1985, p. 1041.
22) 김영규 (1984). 북한의 실질 소비생활수준 분석. 서울: 국토통일원, p. 109.
23) 김용구 (1977). 북한주민의 계층별 생활분석. 서울: 국토통일원, p. 51.
24) '은을 내는 이용생산반-가두인민반들에도 가내작업반을 조직하고 일용잡화를 많이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녀성, 1986년 4호.
25) 최진이 증언: '1986년 서울과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적십자 이산가족상봉이나 이인모 노인의 송환, 남한의 대학생의 시위장면을 통하여 남한주민의 옷차림이나 상점의 모습을 보았다.'
26) 주강현 (1994). 앞의 책, p. 170.
27)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천리마, 1994년 4호.
28) 통일원정보분석실 (1994).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서울: 통일원, p. 11.
29) 전양진 (1998). 앞의 책, p. 221.
30) 주강현 (1994). 앞의 책, p. 166.
31) '계절과 옷차림'. 조선녀성. 1989년 2호.
32) '머리단장을 잘 하려면'. 조선녀성. 1997년 5호.
33) 박혜민 (2001. 6. 5). 첫 남북합작 평양패션쇼, 중앙일보 on-line. 자료검색일 2001년 6월 7일.
자료출처 http://www.joins.com/
34) '검박한 사생활과 녀성'. 조선녀성. 1999년 5호.
35) 홍승은 (1984). 자립경제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 3.
36) 리승기 (1976). 비날론. 평양: 과학출판사.
37) 국토통일원 (1988). 북한의 정치경제. 서울: 국토통일원, p. 133.
38) 김응교보고, 김진계 구술증언 (1990). 앞의 책, p. 99.
39) 국토통일원 (1971). 인민경제 각 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 데에 대하여. 북괴법령집 2. 서울: 국토통일원, p. 554.
40)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p. 88.
41) 이태영 (1988). 북한 여성. 서울: 실천문학사, p. 188.
42) 유순음 증언.
43)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9).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체제의 변화실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p. 5.
44) 주강현 (2000). 북한의 우리 식 문화. 서울: 당대, p. 139.
45) 리유미 (1999). 아름다운 조선옷.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p. 71.
46) 오양열 (1994). 주체문예이론의 구조와 정책상관성. 북한문화연구제 2집,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p. 121-122.
47) 남윤숙 (1989). 한국 현대 여성 복식 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167.

48) 리유미 (1999). 앞의 책, p. 81.
49) 유순음 증언.
50) 천석근 (1994). 조선의 민속전통(2). 옷과 옷차림.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 230.
51) 천석근 (1994). 앞의 책, pp. 41-42.
52) 북한의 패션유행, 중앙일보 북한네트, 자료검색일 2001년 1월 11일. 자료출처 http://nk.joins.com/
53) 앞의 글.